

지역 매 아리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하반기 운영대의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신진균)은 최근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소재 입암산 장가든에서 2018년도 제2차 운영대의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대의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의원들은 지역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좀 더 편리하게 영농에 입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화 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지역 농업인과의 가교역할로 공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신진균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효율적인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농업인들과의 협조체계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운영대의원님들이 공사(公社)와 농업인의 중계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내달 노래하는 '내장산 귀갑약수' 개장

시중 생수가 기준 182억5000만원 상당 먹는 샘물 생산·공급

정읍시가 '노래하는 내장산 귀갑약수(이하 귀갑약수)' 음수대가 완공됨에 따라 내달 1일 개장기로 했다

30일 완공된 귀갑약수는 국립공원 내장산의 관문인 내장산 문화광장에 들어섰다. 시가 3억원을 투입해 4개월여의 공사 끝에 완공했다.

샘의 고장인 정읍시의 상징수(水)로 개발된 것으로, 시민과 관광객 등의 외래 방문객에게 비상 상황은 물론 평상시에 먹는 샘물로 무상 공급된다.

귀갑약수는 먹는 샘물 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로, 연간 7만3,000톤(1일 200톤)을 생산·공급할 수 있다. 시중 판매 생수 가격으로 환산하면 182억

5,000만원(201 기준 5,000원) 상당에 이른다.

15명이 동시 사용할 수 있는 음수대와 귀갑약수 설화 안내관(4개 국어), 등대분수, 공주거북 자매 순례길 관광대를 갖추고 있다. 특히 시설 이용객들에게 정읍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귀갑약수 노래와 내장산 노래, 정읍시 노래 등을 들을 수 있는 음향 시설도 설치했다.

특히 귀갑약수 설화를 바탕으로 한 귀갑약수 노래와 가바(GABA)쌀과 귀갑약수를 주원료로 한 귀갑수 와인, 귀갑약수 식초 등 시제품도 개발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한편 귀갑약수는 내장산 귀갑약수



설화와 관련 있다. 내장산 귀갑약수 설화는 내장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입암산 거북바위와 정읍의 고대 지명으로 추정되는 샘바다, 내장산 등을 소재로 스토리텔링 한 것이다.

설화는 샘바다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공주거북과 내장산 기슭에서 양을 치던 부동 간 애뜻한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정읍교육지원청과 내장사와 협조해 내달 '중국 대학생 재능 기부·정읍문화체험 팸투어'를 실시한다.

'중국 학생 재능 기부·정읍문화체험 팸투어'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 중국어 수업·정읍문화체험 등

정읍시가 정읍교육지원청과 내장사와 협조해 내달 '중국 대학생 재능 기부·정읍문화체험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팸투어는 8월 6일부터 12일까지, 크게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오전에는 중국 대학생들이 정읍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중국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 종이 공예와 중국 만두 빚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업에는 정읍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아 총 23명의 정읍지역 중고생이 참여한다.

오후에는 중국대학생들과 정읍지역 중고생들이 함께 정읍문화를 체험한다. 7일 정읍시립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구절초 비누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내장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사찰식사와 전

통차 체험, 기념 단풍나무 식재 등이 진행된다.

더불어 시립농악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사물놀이 체험과 정읍 9경 중 8경인 전설의 쌍화차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쌍화차 체험 등도 이어진다.

이번 팸투어는 올해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간 실시했던 '국제청년커뮤니티 전북힐링여행 팸투어'의 결실로 마련됐다. 정읍을 방문하는 중국 대학생들의 규모와 방문 기간이 전폭적으로 확대된 점이 눈길을 끈다.

시는 올해 2월과 8월의 팸투어를 기반으로, 중국 대학생 회원 8만명을 확보한 중국 소재 '국제청년커뮤니티'와 협약을 체결한 '해커미 교육 우한지사'를 활용, 지속적인 관광 마케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국 대학생의 지속적인 정읍문화체험 여행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어패류 생식 피하고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 금지해야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도내 해수 및 해산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과 오는 8월 3일부터 개최되는 고창갯벌축제를 앞두고 예방수칙에 대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구시포해수욕장 일원에서 건강 강연회를 위한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패혈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어 발생하는 제3군 법정감염병이다.

환자는 연간 40~60명 내외 수준으로 발생하며 해수 온도가 18°C 이상에서 균활성도가 높아지며 특히, 8월~9월초에 최대 발생하고 해안과 내륙에 상관없이 전국적인 발생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고위험군에서는 치명률(50%내외)이 높은 질환이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며,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 병변의 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사성 병변으로 진행된다. 보건의 관계자는 비브리오패혈증 전파는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 사람 간은 전파되지 않으나,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경찰서, 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가저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가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지난 26일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학대전담 경찰관(APO) 소해진 순경과 외사 담당 김인산 경위는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유형 등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법, 신고요령 등을 설명했다.

이동민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돕고 그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정읍시, 파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응급상황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신속 대응 위한 취지"

정읍시가 지구대와 파출소 등 모두 17 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응급 심장 장애 시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노령인구 증가로 노인성 응급상황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보급·설치 대상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지구대와 파

출소 14개소를 비롯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연지아트홀, 국민여가캠핑장, 문화광장 가설 물놀이장 등 3개소이다.

시에 따르면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6분이 지나면 뇌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심 정지 환자 발견 즉시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설치와 함께 관리지도를 대상으로 사용법

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했다.

시는 현재까지 총 71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했다. 시는 이후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의 날로 지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전전지와 패드는 즉시 교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이 함께 하는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응급의료 체계 인프라 구축은 물론 공무원과 시민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탄탄한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진드기 감염 예방 홍보 캠페인 펼쳐

부안군보건소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려고 격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도 보건의로과, 감염병지원단과 연계해 '전 군민 손 씻기 및 진드기 감염 예방 홍보 캠페인'을 군민과 부안을 찾은 관광객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27일 벌인 캠페인에서 감염병 예방의 기본인 올바른 손 씻기 방법 6단계를 안내하였고, 도내 SFTS 사망자 발생증가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진드기 매개 감염 홍보용 배너

를 설치하였고 리플릿과 물 티슈, 기피제 등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날 군 보건소는 손 씻기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발열성질환(SFTS, 쯤쯤기무시증) 예방관리 등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개인예방수칙을 알리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물은 자주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충분한 휴식과, 날마다 기상정보 확인하기 등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의 건강할 여름 나기를 위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명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